9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나스닥 2천·S&P 1천선 동반 붕괴..가격부담 폭발	뉴욕증시가 1일(현지시간) 가격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음. 그동안 랠리를 주도했던 금융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85.68포인트(1.96%) 떨어진 9,310.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0.17포인트(2%) 급락한 1,968.8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2.58포인트(2.21%) 밀린 998.04를 기록했음. 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장중 발표된 8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19개월만에 확장세로 돌아선데 힘입어 오전 한 때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음. 그러나 주요 지수들이 오름세를 보이자 가격부담이 다시 불거졌고, 3월 이후 랠리를 주도했던 은행주를 중심으로 차익매물이 크게 출회돼 주요 지수들이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음.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 7월 잠정주택판매 지표도 양호한 수치를 내보이는 등 경제지표 개선세는 뚜렷했지만,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데 따른 가격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업종 대표종목들 가운데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유통주인 월마트 단 한 종목에 불과했음. 이는 가격부담으로 업종 구분없이 매물이 쏟아졌음을 시사함.
6개월 연속 상승으로 가격부담	실제 뉴욕증시는 지난 3월 12년래 최저치로 밀린 이후 랠리를 보이며 지난 8월까지 큰 조정 없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특히 다우 지수는 3월 저점 이후 전날까지 46%나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58%나 급등했고, S&P 500 지수도 53%나 올랐음. 이에 따라 S&P 500 지수 구성종목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2004년 이래 가장 비싼 수준으로 상승했고, 마침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9월장이 역사적으로 약세를 보인 점, 특히 8월장이 강세일 경우 9월 증시가 예외 없이 약세를 보였던 과거 경험도 투자심리에는 부담이 되었음.
美 8월 제조업, 19개월만에 확장세	미 공급관리자협회(ISM)는 8월 제조업 지수가 52.9%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월 48.9%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50.5%를 예상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도 크게 웃도는 수치임. 지수는 기준인 50%를 상회하면 경기확장을, 50%를 밑돌면 경기위축을 의미함. 이에 따라 이날 지표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미약하나마 확장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특히 지수가 50%를 상회한 것은 2008년 1월 이후 처음임. 미국의 리세션이 2007년 12월부터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사실상 이번 리세션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것임.

제목	주요 내용
美 7월 주택매매계약..`예상보다 더 많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7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97.6을 기록, 전월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6월 증가세 3.6%와 비슷한 수치이고 1.5%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임. 특히 7월 잠정주택판매 지수는 2007년 1월 이후 가장 높았고, 2008년 1월에 비해서는 13%나 웃돌았음. 엘렌 젠트너 도쿄 미쓰비시 UFJ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확실히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美 7월 건설지출 0.2% ↓..민간지출은 증가	미 상무부는 7월 건설지출이 전월비 0.2% 감소한 9,58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7월 건설지출 감소에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민간 주택 프로젝트는 전월비 2.3%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이같은 증가세는 3개월만에 처음임. 이에 따라 7월 건설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민간 부문의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미국의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임. 제프리 로치 호라이존 인베스터먼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몇분기내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음.
현대차, 해외서 `나홀로 호황’	경기침체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법인인 베이징현대차는 8월 한달간 5만 713대를 판매했음. 이는 전월보다 15.7% 늘어난 수치로, 지난 5월에 기록한 역대최고치를 석달만에 갈아치운 것임. 차종별로는 중국형 전략모델 '위에둥'이 2만 1,092대를 기록, 가장 많이 팔렸고 엘란트라가 1만 4,369대로 그 뒤를 이었음.
정유업계, 잇단 회사채 발행..설비투자용	정유사들이 설비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음. 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3년이나 5년 만기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에도 5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고도화설비 증설자금에 소요될 예정임. S-Oil은 오는 18일께 3년 만기와 5년 만기로 총 4,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임. S-Oil은 지난 7월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달 중순 6년만에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함. GS칼텍스도 지난달 고도화 설비 투자용으로 5년 만기 회사채 3,00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GS칼텍스는 지난 4월 4,000억원, 5월 3,000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했음.
韓 8월 주택대출 약 4兆 증가..대출 규제 `임박`	지난 8월에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8월30일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원, 비은행권은 8,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며 "월말에 대출이 몰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대출 증가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